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Japan's lino orders ammonia carrier at Hyundai Mipo

일본 lino Kaiun Kaisha가 현대미포조선에 23,000CBM급 암모니아운반선을 발주함. 전세계 최초 Ammonia ready 암모니아운반선일 것으로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12월임. (Tradewinds)

ONE eyes \$2.5bn containership deal as yard prices soar

일본 ONE이 네오 파나막스 컨테이너선 15척, 총 25억달러 규모의 발주를 추진 중. ONE은 아직 12,000TEU~16,999TEU 선박을 발주하지 못한 마지막 선사로 알려짐. 현재 한국 조선업체는 척당 1.8억달러, 중국은 1.7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NG선 용선료 10만弗 웃돌아...유럽행 수송 활발

LNG선 Spot운임이 10만달러를 돌파한 12만달러/일임. 가스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유럽으로 수송량이 늘어남에 기인. 손익분기점인 7만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음. (코리아쉬핑가제트)

Bulkers plan to stay in the secondhand market

벌크선주는 운임이 한달새 두배 증가한 호황에도 신조선 발주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대신, 중고선 매입을 고려하고 있음. 환경규제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 선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시행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Capesize bulker market continues to slide amid China's energy crisis

목요일(14일) Capesize 5TC가 70,781달러/일로 -5.8% 하락함. 중국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한 우려에 기인함. 중국-브라질 노선이 전노선 중 최대폭인 -5,750달러 하락함. 2008년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주 운임인 86,953달러/일 대비 -19.2% 하락함. (Tradewinds)

컨선사 정시운항률 역대최저치 추락... 30%대 붕괴 '초읽기'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8월 정시운항률 역대 최저치인 33.6%를 기록함. 전년동월에는 2배 수준인 63.7%를 기록한 바 있음. 6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2개월 연속 하락함. 8월 물류 병목현상은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작업 인력 부족에 기인함. 평균 지연 도착 시간도 역대 최대인 7.6일임. (코리아쉬핑가제트)